

미국 대선 과정이 흥미로운 이유



올해 내내 치러질 미국 민주·공화당 대선 후보들의 경선 레이스와 본선 싸움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대선 과정을 지켜보면 지금 미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여론은 어떻게 흐를지 대강 보인다. 그런 것들이 곧 미국을 형성하는 요소들이다. 다른 나라 대선에 뭐 관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다. 그렇지만 미국 정치가 전 세계의 경제·안보는 물론 대부분 국제 질서의 구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싫든 좋은 흥미를 좀 가져보는 게 좋다. 관점을 갖고 말이다.

우선 공화당 경선.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 대선 게임의 최고 흥행 요소다. 경선 초반에 누구도 그가 이런 대박을 터뜨릴지 예상 못했다. 거대한 유산을 받은 부동산 투자의 귀재가 정치에 뛰어들어 거침없이 막말하고, 무조건 비난하며,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외친다. 열광하는 관중들 앞에서 애당초 가장 앞서갈 것으로 보였던 정치 명문 집안의 모범생 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존재감은 약해 보인다. 오죽하면 트럼프 주의(Trumpism·트럼프가 무슨 막말을 하건 무조건 지지하는 현상)라는 말까지 생겼

66

선거라는 게 늘 누적된 불만이 폭발하는 과정을 거치긴 한다. 비주류가 승리하는 경우도 드물다. 하지만 소수자·약자·실패자를 거칠게 비하하는 막말이나 기득권을 뒤집어엎자는 주장은 예전에 비하면 과격한 언동들이다. 일단 그게 먹히는 게 지금의 미국이다.

99

을까. 역시 막말이 강했던 알래스카 주지사 출신 세라 페일린 전 부통령 후보도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으니 막말 기조는 끝까지 이어질 것 같다.

트럼프 인기의 배경에는 양극화에 따른 중산층의 불만, 진보적 흑인 대통령에 대한 우파의 반감, 테러 공포, 소수민족 확장에 따른 백인들의 불안감 등이 깊이 배어 있다. 그런 속내를 파고들며 우파 진영 내에서 확실한 갈라치기 전략을 구사하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전통적 가치인 개방, 포용, 자유보다는 폐쇄주의, 이기주의, 진영 논리 같은 것들이 득세하는 분위기마저 보인다.

보수 주류들의 견해에서 보면 정상궤도 이탈이다.

그래서 공화당 주류 내에서는 후보교체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러다간 미국이 망가진다고 보고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인 1970년생 테드 크루즈를 미는 것이다. 미국 주류의 전형인 백인·보수 우파 기독교도로, 정책 면에서는 트럼프보다 더 오른쪽인 것도 많다. 트럼프가 전당대회 때까지 이 기세를 몰고 갈지가 공화당 경선의

최대 관심거리다.

새해 들어 민주당 경선에선 뜻하지 않은 돌풍이 일 조짐이다. 뱅가저 사건이나 이메일 사태가 있었지만, 줄곧 힐러리 클린턴이 대세였다. 그런데 무소속인 버몬트주 연방상원의원인 버니 샌더스(75)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4월에야 대선판에 뛰어든 그는 자칭 민주적 사회주의자이다. 미국 정치에서 사회주의자는 거의 표를 얻지 못한다. 그런데 1월 중순 사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경선이 가장 먼저 치러지는 아이오와주(2월 1일)와 뉴햄프셔주(9일)에서 클린턴을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 언론들은 그동안 그를 거의 취급 하지 않았었다.

이유는 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데 있다. 선거자금으로 클린턴은 대기업으로부터 뭉치 돈을 받지만, 샌더스는 소액 다수가 대부분이다. 그는 부유층 15명의 재산이 하위층 40%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경제 체제, 탐욕스런 월가의 부호들, 약자 차별, 전쟁으로 해결하려는 대외 정책을 신랄히 비판한다. 한마디로 미국 내 불평등을 심판해야 하며 그 일을 정치가,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샌더스는 클린턴을 진보의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몰아세운다.

양당에서 일어나는 '이상 현상'의 기저에는 관통하는 기류가 있다. 바로 기득권에 대한 엄청난 불만과 변화 욕구이다. 미국의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어느 때보다 미국은 이념·인종적으로 분열됐고, 빈부 격차가 심해졌으며, 정치 불신이 도를 넘었다고 본다. 선거라는 게 늘 누적된 불만이 폭발하는 과정을 거치긴 한다. 비주류가 승리하는 경우도 드물다. 하지만 소수자·약자·실패자를 거칠게 비하하는 막말이나 기득권을 뒤집어엎자는 주장은 예전에 비하면 과격한 언동들이다. 일단 그게 먹히는 게 지금의 미국이다. 올해와 내년에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 할 우리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미국 경선과 대선 결과가 어떻게 펼쳐질지 더 흥미로운 것이다.